

# 도가니 피해자들 또 눈물...웁긴 시설서도 폭행·학대

### 인화학교 출신 19명 강제 삭발에 곰팡이 핀 빵 먹여 인권침해·공금유용 등 복지법인 대표·시설장 해임 민·관합동조사서 드러나...광주인권센터, 고발 수사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새로 웁긴 장애인거주시설에서도 또 다시 폭행과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장애인인시설 셧다운(Shut Down) 대책위원회'와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2011년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이후 피해자 30명 중 19명이 광주시 북구에 있는 G장애인거주시설로 거처를 옮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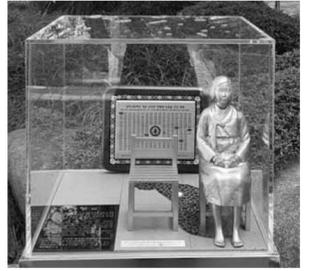
가족 등 연고자가 없는 탓에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였다. 하지만 이들은 이 곳에서도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폭행과 학대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 대표 A씨는 피해 장애인들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폭행했다. 또 자신의 강아지를 돌보게 하거나 세차·빨래 등을 강요했다. 곰팡이가 핀 빵을 간식으로 지급

하기도 했다. 여름에는 속수에 에어컨을 켜지 않았고, 겨울에는 난방을 하지 않았다. 비가 오면 물이 새는 데도 방치했다. A씨는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자신의 옷과 골프화 등을 구입했다. 보조금으로 구입한 음식재료는 물론 세탁기까지 빼돌렸다. 처방이 없는 정신과 약물을 투여하기도 했다. 시설장 B씨는 A씨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이를 방관·묵인·동조·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광주시, 북구,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센터, 대책위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서에서 밝혀졌다.

광주시는 지난 8일 대표이사 A씨와 시설장 B씨를 해임했다. 또 오는 24일과 27일 A씨 등 법인 임원을 불러 정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인권센터는 이들을 보조금 및 후원금 부정적 사용, 인권침해,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북부경찰은 A씨의 폭행 사실을 확인했다. 또 A씨의 공금 부당 사용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책위는 광주지역 장애인·인권단체와 공동으로 22일 오전 11시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처벌과 장애인 인권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 관계자는 "이 사건은 2011년 도가니 사건과 다를 게 없다. 30명의 피해자가 또 다른 시설로 옮겨진다고해도 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근본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개인별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들 피해자는 '도가니' 피해자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도가니 피해자는 당시 인화학교 재학생이었고, 이번 피해자들은 같은 법인 산하의 인화원(장애인거주시설) 거주자들이다는 설명이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 상무고에도 평화의 소녀상 학생·교사 모금...오늘 제막식



광주 상무고 교정에도 소녀상이 세워진다. 성덕고가 지난해 12월 교정에 소녀상을 세운 이후 두번째다. 상무고는 22일 오후 1시40분 교사와 학생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사진) 제막식을 연다. 학교 역사동아리 '온리'와 과학동아리 '시리우스'를 비롯, 학교 내 11개 동아리가 지난해 연말부터 교내 소녀상 설립을 위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펼친 결과다. 정주완(19·3년) 시리우스 동아리 회장은 "일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가슴아픈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세운 동상"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후원 홍보 팸플릿을 제작해 배포하는가 하면, 교내 행사를 통해 위안부 문제와 소녀상 설립 취지를 지속해서 알렸다. 교사와 학생 등은 모금 활동을 통해 제작비 55만원을 마련, 폭과 높이가 40cm인 소녀상을 만들었다. 소녀상 뒤에는 후원자들의 명단을 함께 새겨넣었다. 주예린(여·19·3년) 온리 동아리대표는 "학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통해 할머니들의 피해를 기억하고 일본의 정적 사과를 요구하기 위한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

## 오늘 세월호 시험인양 시도

### 24일까지 사흘간 날씨 좋으면 선체 인양...유족들 진도로

정부가 22일 기상 상황이 좋으면 세월호 시험 인양을 시도하기로 했다. 또 24일까지 사흘간 기상 여건이 양호하면 세월호 선체 인양도 시도할 예정이다. 다만, 확실한 기상 예보가 나오는 시간이 22일 오전 6시여서 그때까지는 본인양 여부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이날 본인양을 하지 못하면 다음 소조기가 찾아오는 다음달 5일까지 시도하게 된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2일 새벽 6시에 받아보는 기상 예보가 좋으면 세월호 시험인양을 시작한다. 시험인양은 세월호를 사이에 둔 잣대 바지선 2척의 유압을 실제로 작동시켜 세월호 선체를 해저면에서 1~2m 들어 올리고, 실제 인양하는 데 기술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당초 해수부는 지난 19일 시험인양을 하려 했으나 인양줄(와이어)이 꼬이는 문제가 나타나 이를 보완하느라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또 20~21일은 파고가 최대 1.7m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돼 결국 22일까지 시험인양을 보류했다. 해수부는 시험인양을 무사히 마치고 기상 여건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세월호를 완전히 수면위로 끌어올리는 본 인양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적합한 기상 여건은 최소 사흘간 파고 1m·풍속 10% 등 양호한 날씨가 최소 3일간 지속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해수부는 잣대바지선으로 선체를 끌어올려 반잠수식 선박에 실기까지 총 3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기간 내내 기상이 좋아야 인양을 무사히 마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시험인양이 성공하면 곧바로 본인양을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본인양을 바로 하지 않으면 다음 소조기인 다음달 5일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 사이 작업 현장 등 변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월호를 안전하게 인양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만큼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무리하게 시도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유족들도 진도로 향하기로 했다. 4·16세월호가족협의회는 21일 임원회의를 열어 22일 새벽 진도로 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가족들은 현지에서 배를 타고 작업 해역으로 최대한 접근해 인양 작업을 지켜볼지, 아니면 참사 해역과 가까운 인양작업 현장을 잘 내려다보이는 동거차도로 갈지는 현장 상황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문화재 소방훈련. 광주시 북구 직원들과 북부소방서 소방관들이 21일 매곡동 김용학 가옥에서 문화재 화재진압훈련을 하고 있다. 살림집과 정자가 언덕 위에 조화롭게 배치된 1900년대 초의 민간원림(民間苑林)으로 유명한 김용학 가옥은 지난 1989년 3월 광주시민숙자료로 지정됐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 또 교사 채용 사기...사립학교 전 이사장 잠적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브로커에 의한 채용 사기를 넘어 학교법인 이사장이 직접 사기 행각에 나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매관매직과 다름 없는 까닭이다. 21일 여수경찰은 여수지역 사립학교 A고교 전 이사장 김모(60)씨를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비리 의혹이 불거져 자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 학교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월께 기간제 교사 모집공고를 보고 연락한 A씨에게 "기간제 교사 채용은 물론 정규 임용을 해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며 지난해 5월까지 총 5회에 걸쳐 43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기간제 교사인 B씨로부터 2015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577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 중인 김씨의 아내 등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교직원 채용 비리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광주 남암학원 이사장과 법인실장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 산하 학교 교사와 직원 채용 과정에서 교사지망생 등 9명으로부터 6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은 "교육계 불신과 사회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냉소적 인식을 안겨주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징역 3년과 함께 추징금 1억7950만원과 2억 17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전남대 5·18연구소 매달 한차례 집담회 개최

전남대 5·18연구소는 5·18 연구의 심화와 확장을 위한 집담회를 매월 한 차례 개최하기로 했다. 21일 밝혔다. 5·18 연구의 최근 쟁점과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첫 집담회는 오는 27일 오후 5시 전남대 융복합 3층 회의실에서 '5·18 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다. 4~5월에는 '5·18 진상규명 관련 쟁점 1'(진압주제), '쟁점 2'(저항 주제)를 주제로 마련되고 ▲6월 '5·18 기념사업 관련 연구' ▲7월 '5·18 학생 타임라인 재구성' ▲8월 '5·18 관련 문화·예술운동' ▲9월 '5·18의 의미와 성격 규정' ▲10월 '5·18 왜곡·편향 대응' ▲11월 '5·18 연구 관련 각 기관의 역할 제고방안' ▲12월 '5·18 기억과 미래세대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진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 승마장 뛰쳐나온 말 포획 소동

○~장성군의 한 승마장을 뛰쳐나온 말들이 국도 주변에 출몰하면서 경찰관과 소방대원이 포획에 나서는 등 한바탕 소동. ○~21일 장성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0분께 장성군 진원면의 한 승마장에서 3살짜리 경주마 2마리가 1.5m 높이의 마구간 울타리를 뛰어넘어 탈출, 인근의 국도 1호선 주변을 질주하는 것을 본 운전자들이 "저 말(馬) 좀 잡아달라"는 신고를 119에 잇따라 접수해왔다는 것. ○~마구간을 나온 말들은 도로에 올라섰다가 달려오는 차량을 차가 무서웠던 탓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는데, 출동한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받고 깜짝 놀라 출동했는데 우려와 달리 말들은 승마장과 200m가량 떨어진 밤나무밭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며 안도의 한숨. /정성=김용호기자 yongho@

**BN 테이크아웃(포장판매)의 혁신**  
전기/가스가 필요없는 **참숯 떡갈비/통닭 바비큐 훈연기**  
현재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장비구입, 메뉴 추가로 대박창출!!

제품크기 • BN 1500 : 1440(L) × 650(W) × 1250(H)  
• BN 1000 : 940(L) × 650(W) × 1250(H)

본사/영업본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04-1 공구상가 C 32동 401호 홈페이지 : bnitech.co.kr  
Tel. 02-2029-8188/9 Fax. 02-2029-6404 E-mail : bntech1122@naver.com  
공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신단5번로 45(장덕동) 호남영업본부 : Tel.062-953-2995 Fax.062-953-2998

**참숯 떡갈비/통닭 바비큐 훈연기**  
테이크아웃(포장판매) / 창업

현재 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저렴한 장비 구입하여 떡갈비/통닭 메뉴 추가/포장판매로 부가 이익이 발생됩니다.

**제품의 특징**

- ▶ 육즙이 살아있어 육질이 부드러움.
- ▶ 여러 잡내가 없이 깔끔한 맛이다.
- ▶ 뛰어난 맛과 육질(부드러운) 포장판매 가능하다.
- ▶ 최고의 숯(불맛)이 살아있다.
- ▶ 방장보관 3일, 재고사용할 수 있다.
- ▶ 장비 이동이 용이하다.
- ▶ 전기, 가스가 필요없다.

**장기 카드할부로 구입비용 부담 줄이세요!!**

**적용분야**

- ▶ 가정집(남녀노소)
- ▶ 뷔시터, 야유회
- ▶ 팬션/콘도
- ▶ 캠핑시